

19살 가자청년의 비극...불 타 숨지는 모습 전세계가 봤다

사반 알달루, 숭한 위기 넘기다 이스라엘 알아크사 병원 공습서 사망
불길 휩싸인 영상에 전세계 공분...“민간인 사상 피할 모든 조치 필요”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던 가자지구 19세 청년이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난민 텐트촌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학생이었던 사반 알달루는 지난 14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 부지에서 불에 타 숨졌다.

알달루가 불길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팔을 흔들는 모습은 난민촌 목격자에 의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됐고, 전쟁의 공포와 가자 주민의 비통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확산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센터를 타격할 목적으로 병원 단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하마는 병원 주차장에 있던 피란민에게 날아들었고 알달루와 그의 어머니 등 여러 명이 숨졌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의료시설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을 지킬 것으로 믿고 병원 옆에 텐트를 쳤다가 변을 당했다.

알달루는 2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안타깝게 숨졌다. 한때 의사를 꿈꿨고,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가자시티 알하사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박사학위를 딸 수 있을 희망하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꿈을 앗아갔다.

살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소셜미디어에 전쟁을



14일 가자 알아크사 병원 인근 난민촌에서 불에 타 숨진 알달루.

멈춰달라는 호소문을 올리고, 피란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고,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된 알달루는 가자지구 탈출만이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주변에 알리기도 했다.

알달루의 고모 카르바한은 “그의 계획은 자신이 빠져나온 후에 여동생과 형제, 부모를 탈출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접촉한 해외 활동가들을 통해 탈출 자금을 2만달러 이상 모았지만, 이스라엘이



14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습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폐쇄 하면서 탈출 시도는 무산됐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뉴스를 보고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을 분석하면서 가족들에게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알달루는 사망 10일 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이슬람 사원 공격에서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결국은 불 속에서 숨졌다.

알달루 등 피란민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폭하기 충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 영상과 관련해 “우리가 본 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라도 민간인 사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수장 아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북부 베이 트 라히야 등을 공습한 후 108명이 사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잔해 아래와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조대가 도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부와 공약에 유럽 기업들 ‘덜덜’

해리스 세금 인상 공약은 반겨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부와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들보다 유럽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세금 인상 공약은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반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월 기업들의 실적 관련 전화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은 유럽 기업들에서 미국 기업 대비 5 대 2의 비율로 많이 나왔다.

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블룸버그의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기업의 수익성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한돼 유럽 증시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 성장도 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0.9%포인트 상승하고, 몇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포인트 타격받게 된다.

가마 자산 관리의 라지브 드 벨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관세 부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유럽 국가들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1930년대에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명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증시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세금 인상 공약은 유럽 증시에 상대적 우위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담을 줘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문디 투자 연구소의 가이 스티어 선진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미국 소형주를 매수하고, 소비자 수출에 의존하는 유럽 기업 주식은 매도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유럽 기업들은 지난 3-6개월 동안 실적이 부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의 토빈 하소 컬럼니스트도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부와 공약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포장했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것이 좋게 보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자 타일러 코헨의 글을 인용,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동맹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에 캐나다 등에 공장을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미국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하면 100만 달러 추첨”

‘불법 선거운동’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금품 선거운동에 불이 붙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 원)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정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머스크가 정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대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다.

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시 사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 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정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정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 3000 원)를 지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 7000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